

AIB 사태로 본 일본의 대(對) 중국인식

장원재_ 동아일보 동경특파원

“오랜만에 대 망신을 당한 것 같다.”

최근 니혼게이자신문 칼럼에 실린 한 자민당 간부의 말이다. 그의 다음 발언은 더 신랄하다. “볼썽사나우니 지금 와서 버둥거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혹독하게 평가된 것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과 관련한 아베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다. 아베 정부는 중국의 AIIB 가입 권유를 매몰차게 거절했다가 3월부터 영국과 프랑스, 독일, 한국 등이 잇달아 가입하자 갈팡질팡하기 시작했다. 그 동안의 태도를 바꿔 돌연 ‘조건이 맞으면 가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집권당 내부에서는 ‘인식이 안이했고, 대응이 미숙했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믿었던 미국까지 AIIB 가입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오자 결국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4월 22일 일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참여를 협의하겠다”고 밝히며 한 발 물러섰다.

AIB 사태가 보여준 일본의 대중국 인식

일본 정부가 가입을 유보하는 이유로 지적한 AIIB의 문제는 크게 네

가지다.

- 1) 중국 정부가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자의적으로 은행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 2) 대출 심사가 제대로 안 될 경우 오히려 개발도상국 발전을 저해하고 투자국도 손해를 입을 수 있다.
- 3) 지금까지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주축이 돼 진행해 온 개발 금융 국제 기준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 4) 일본의 위상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

하나씩 보면 틀린 말은 없다. 그런데 이 4가지가 일본이 AIIB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의 전부일까.

사실 AIIB 가입을 유보한 판단의 기저에는 한국과 상당히 다른 일본 지도층의 대중국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중국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성장해 미국과 함께 세계를 이끄는 지도적 위치에 오를 것으로 보는 일본 지도층은 많지 않다.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잘 꾸려왔지만 빈부격차, 환경오염, 부패 등 중국 내부의 문제들이 성장을 저해할 것이고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면서 정치적으로도 진통을 겪을 것이란 판단이다. 일본 정부와 언론에서 미국과 중국을 지칭하는 'G2(주요 2개국)'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G2'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인식차를 실감할 수 있다. 최근 만난 일본의 정치학 교수는 “중국이 지금까지 빠른 속도로 성장했지만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데다 부패 등 내부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지 않느냐”며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비공식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 같은 판단에는 일본이 지금까지 유지해 온 동아시아 지역의 주도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는 바람도 들어 있다. 150여 년 전 메이지 유신을 통해 서양 문명을 받아들인 이후 일본은 계속 동아시아의 선두에서 있었고, 지금 일본의 지도층은 그런 자국의 위치에 익숙해져 있다.

특히 전후의 미일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지위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해 왔다. 이 때문에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면 해법은 늘 미일동맹 강화로 귀결된다.

일본 최대신문 요미우리신문에서 AIB 사태에 대한 해법으로 내놓은 것도 미국과 일본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다. 이 신문은 AIB 가입에 대해서도 사설을 통해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책임을 사진 일본과 미국 정부가 AIB 가입을 미룬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주요국이 차례로 AIB 참가 의사를 밝히며 “외교 실패로 일본이 고립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미일동맹의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미국과의 공동보조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통적인 미일동맹으로 이번 사태를 돌파해야 한다는 요미우리의 논조는 일본 정부의 기조와 정확히 부합한다.

희망 섞인 판단과 어긋나는 현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사태에서처럼 일본의 희망 섞인 판단과 어긋나는 현실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AIB 사태는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이 중국의 위상을 인정하고 기꺼이 그 영향력 아래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일본 지도층에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방세계를 이끌어왔던 G7(주요 7개국) 중에서 미국, 일본, 캐나다를 제외한 4개국(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이 AIB에 가입했다. 가입과 관련

해 보조를 맞추기로 해 놓고 절반 이상이 태도를 바꾼 것이다.

G20(주요 20개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5개국(미국 일본 캐나다 아르헨티나 멕시코)만 미가입 상태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이 AIB에 참여한 것도 안보적 상황이 유사한 일본을 놀라게 했다.

정치권과 경제계의 미묘한 차이도 감지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변신한 중국의 위상이 날로 커지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AIB 가입을 주저할 여유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일부 기업들은 AIB에 가입하지 않으면 아시아 인프라 사업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걱정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월 사설에서 일찌감치 ‘중국이 주도하는 인프라은행에 적극 관여할’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유럽 선진국이 참가해 파급력이 있는 국제금융기관이 아시아에서 탄생하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불안과 심리적 저항 사이에서

일본 경제의 중국 의존은 수출입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해 소비세 인상으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주된 요인이 해외 관광객, 특히 중국 관광객이다. 일본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지난해 240만 9,200명으로 전년 대비 83.3% 급증했다. 실제로 긴자 거리에 나가보면 일본어보다 중국어가 더 많이 들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은 미쓰코시, 마쓰야 등 최고급 백화점의 큰 손으로 환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 관광객을 보는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다. 시끄럽고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시선의 기저에는 AIB 사

태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불안과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리적 저항이 깔려 있다.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불편한 심기는 일반인 사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개인적 경험을 하나 얘기해 보겠다. 올 1월 아들을 데리고 디즈니랜드에 갔을 때의 일이다. 인기 놀이시설 앞에 줄을 서 있는데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성이 “중국과 중국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자 여자친구가 그 말을 받아 “시끄럽고 예의가 없다”, “어디나 너무 많다”는 등 여러 이유를 댔다. 처음 말을 꺼낸 남성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러저런 이유에서 싫다는 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싫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줄 서 있는 사람의 30% 정도가 중국 관광객이었다. 그런데도 이들 커플은 기다리는 내내 중국과 중국인을 비하하는 말 일색이었다. 아들을 안고 있지 않았으면 나라도 한마디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한편으로는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일본인들이 얼마나 싫으면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와 함께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 경험이었다.

AIB 가입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해 보면 일반인 사이에서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 산케이신문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절반이 넘는 51.1%의 응답자가 AIB 가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4.7%에 불과했다. 중국의 부상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일반인이나 지도층이나 마찬가지로 지라는 뜻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씩 달라지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마이니치신문은 며칠 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칼럼을 썼다.

“확실히 아직 모르는 것투성이다. (AIB를) 주도하는 중국이 계속 순조롭게 경제성장을 이어갈지도 확실치 않다. 하지만 감히 묻고 싶

다. 일본은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했는지. (과거 일본은)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했지만 미나마타병 등 심각한 공해가 사회문제가 됐다. 잘못을 저지르고, 또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부여받으며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중국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AIIB가 일본의 대중국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日本空間**